

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리플릿: 시마바라반도의 성립

지질학 애호가에게 시마바라반도는 400만 년 이상의 화산 역사를 가진 야외 박물관입니다. 이곳, 특히 남해안에서는 자연재해가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.

하야사키 해안

해안을 따라 즐겁게 산책하면서 이 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바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무스름한 현무암은 430만년 전 해저 화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

다나바타 전망대

이 지역 계단식 밭의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전망 지점입니다. 시마바라의 남쪽 절반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감자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. 이 지역의 풍부한 화산성 토양으로 이루어진 계단식 밭은 대지에서 파낸 화산암으로 된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

하라 성터(原城跡)

1638년 시마바라·아마쿠사 잇키의 마지막 전쟁터입니다. 이 성은 9만년 전 아소산(1,592m)의 대규모 분화에 의해 만들어진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. 화산재와 속돌이 1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이 땅에까지 온 것입니다.

다쓰이시 해안

해안가 동산 측면은 시마바라반도의 50만 년 지질 역사를 보여줍니다. 각 지층으로부터는 바다 시대부터 운젠 화산의 초기 화산재층과 그 후 산의 성장을 알 수 있습니다.